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강은 흘러야 한다

낙동강과 삶을 함께 하는 인생이 있다. (사)낙동강공동체 대표 김상화 선생이다. 그동안 이력과 경험을 보면 '낙동강 아바타(化身)'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5년 동안 무려 1370번 낙동강을 답사했고, 787회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낙동강 환경 과제를 제시했다.

김상화 선생은 이같은 경험을 담아 <강은 흘러야 한다>를 최근 출간했다. MB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이다. 자연환경론자의 낙동강 보존론의 핵심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근거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장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책을 펴면 첫 장에 강물 같은 시(詩)가 흐른다. 강은교 시인의 '아아, 낙동강-내일이면 늦으리'라는 제목의 시다.

수천 살의 은빛 바람/푸른 허리에 꽂고/수만의 흰 구름 이마/안고가는 그대 … 중략 … 내일이면 늦으리/달려라 아름다운이여/이제 우리/푸른 그대 가슴에/빛나는 저 별 놓으리

<강은 흘러야 한다>는 모두 4편으로 구성됐다. 각 편 제목도 강물 같은 정서가 흐른다. 제1부 '결결이 아름다운 옥빛 생명의 강'은 낙동강과 첫 인연을 맺게 된 동기부터 1300리 물길에 흐르는 역사와 문학을 담고 있다. 1991년 페놀 유출 사고를 계기로, 당시 음악도의 꿈을 접고 낙향해, 민들레 홀씨처럼 야학을 하면서 낙동강 사랑을 시작한 사연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제2부 '재채기하는 강, 억장 무너지는 강이여'에서는 낙동강의 발원지 태백 함백산 황지 일대의 환경훼손 사례부터 토건족(일본조어인 건설업자-지방의회 의원-관료를 연결하는 '삼각 커넥션'을 지칭)이 벌인 낙동강 훼손과 개발 사례가 적시된다.

제3부 '천석의 종은 그 종채로 치면 울리지만, 낙동강은 하늘이 쳐도 울리지 않는다'에서는 개발사업으로 호소화(湖沼化) 오염지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제4부 '산자분수령 같은 국민생각'에서는 4대강 사업을 경계하는 8가지 덕목을 말한다.

이 책은 그러나 낙동강의 환경은 물론 역사와 문화 등 전반을 다루면서, 문서매체의 전달력을 충분히 살리는 데는 조금 부족했다. 지도와 현장 사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장문의 문장으로 설명하다 보니, 읽는 이로 하여금 인내심을 요구하게 한다. 그러나 저자의 현장경험과 해박한 연구 성과가 녹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은 흘러야 한다 | 김상화 지음 | 미들하우스 | 1만2000원

진정화

35년 낙동강 사랑 담뿍 담긴 환경서

맑은 시선으로 본 일상 그리고 부처

'화가 났어요' '부처님나라 개구쟁이들' 천진불 공략

천진불이라는 말이 있다. 천진한 마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뜻일 테다. 그래서 예부터 어린아이를 부처에 비유하곤 했다.

천진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불심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그림 동화책 <화가 났어요>와 어린이 불교 동시집이 <부처님나라 개구쟁이들>이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을 통해서만이 아닌, 그림 동화와 동시 한 편으로도 작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감정을 느낀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모든 감정을 느낀다. 아이가 어떤 이유로 화를 내든지 간에,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대응하게 되면, 아이는 수시로 화를 내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한다. 반대로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억누르게 되면 아이는 화를 표현하지 못하는 수동적 공격형의 성격이 될 수 도 있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 <화가 났어요>에서의 얀은 자신의 새빨간 털투성이 '화'와 친구가 되고 금새 '화'를 다스릴 줄 알게 된다. 할아버지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 얀에게 그만 놀고 저녁을 먹자고 말을 한다. 얀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고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면서 큰 소리로 울어버린다. 화가 나있는 얀에게 할아버지는 "화와 함께 앉아 있어라"고 말을 한다. 방으로 들어간 얀은 새빨간 털투성이 괴물인 자신의 '화'를 만난다. 얀과 얀의 화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춤을 추기까지 한다. 그러다 조금씩 얀은 화를 가라앉히고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할아버지의 말은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과도 같다. '화도 손이나 발처럼 우리의 일부'라고 말한 틱낫한 스님은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했다.

이 책은 마음 챙김 명상과 요가를 오랫동안 지도해 온 작가 게일 실버가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 어린이들이 자신의 화를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경쾌한 글로 제시했다. 책의 그림은 붉은색 비단과 한지를 잘라 콜라쥬 기법으로 생동감있게
표현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불교 동시집 <부처님나라 개구쟁이들>은 71편의 시를 모두 불교소재로 다루고 있다. 절집에서 쉽게 보고 만나는, 절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시의 소재가 되고 있다.

"낑낑 숙제할 일 없고… 중략 …아니 아니 그 무엇보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한평생 먹고살 걱정 없는 왕자로 태어나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고 '해탈'이 무엇이기에 부처님이 되셨을까? 우와, 나는 부처님이 되는 것보다 왕자를 버리는 일이 더 어려웠겠다."-부처님은 왕자님 中.

저자는 어른이지만 동시에 어린이들이다. 저자가 오랜 시간 여행길의 절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놀거나 대화하면서 끄집어낸 그들의 느낌과 생각을 차곡차곡 챙겨 어린이다운 시선으로 옮겨놓았다.

동아일보 등의 신춘문예에 당선된 동시작가 이봉직이 시를 지었으며 각 시가 담긴 페이지에는 부처님과 동자승을 용정운 작가가 부드러운 삽화로 담아냈다.

화가 났어요 | 게일 실버 글 ·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 문태준 옮김 | 불광출판사 펴냄 | 9000원 |

부처님나라 개구쟁이들 | 이봉직 동시 · 용정운 그림 | 운주사 펴냄 | 85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禪心으로 읽은 성경

활안 스님 '성서선해'

"진리는 하나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힌두철학서 <우파니샤드>는 진리에 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도 "진실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할 뿐이다"고 말했다.

<성서선해(聖書禪解)>는 활안 스님이 불경과 성경의 공통적 분모를 찾아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한 책이다.

출가 전 기독교신자로서 잠시 생활했던 활안 스님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적대시하는 눈으로 타 종교의 성전을 폄하하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당 종교의 성전에 담긴 진리에 접근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책은 성서교재간행사의 <마스타성경>을 사용했으며 각 성경 소절 밑에는 옛 선사들의 예지(叡智)가 담긴 말씀을 토대로 활안 스님이 해석을 썼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책이다.

성서선해 | 활안 지음 | 불교정신문화원 펴냄 | 1만5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무소유(문고본)	법정	범우사
3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문학의 숲
4	오두막 편지	법정	이레
5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인연이야기	법정	문학의 숲
8	진리의 말씀	법정	이레
9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10	숫타니파타	법정	이레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안동일 변호사, 4 · 19 혁명 59일간의 기록

4 · 19 혁명이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서울대 법학도였던 안동일 변호사(동산불교대학 이사장)는 1960년에 4 · 19 현장에 있었다. 그의 경험은 "시위에 직접 참가한 학생의 손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낳았다. 그 사명감으로 안동일 변호사는 2월 28일 대구 학생시위부터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이르기까지 피로 물든 59일간을 기록했다.

저자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 4 · 19 혁명은 미완이며 진행형이다. 어떠한 독재에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이 기록이 4 · 19혁명 50주년을 맞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4 · 19 | 안동일 지음 | 예지 펴냄 | 1만 5000원

이나은 기자

행복하려면 정진하라

김재성 교수 '초기불교산책1'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뿐이다"고 말씀했다.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펴낸 <초기불교 산책1>을 사성제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불교 초기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포인트라는 설명이다.

한언 펴냄 | 1만 4900원

행복을 막지 마라

법상 스님 '…행복수업'

매주 일요일 인터넷 카페 '목탁소리'를 통해 내놓았던 법상 스님의 법문이 책으로 엮여져 나왔다.

법상 스님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며 "행복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거부하거나 막아서지 않으면 됩니다. 막고 있던 방어벽을 허물고 마음을 활짝 열어 행복이 파도쳐 들어오도록 삶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당부한다.

한국문학 펴냄 | 1만5000원

행복이란 '작은 것'

노우 스님 '작은 행복'

양산 통도사로 출가한 후 줄곧 참선수행에 전념해온 노우 스님의 수상록. 저자는 행복이란 '작은 것'에 있다고 말한다. "결국 문제는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로 귀결된다."

추운 겨울에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호빵을 한 봉지 사가지고 바삐 집으로 향하는 아버지, "퇴근길 아버지의 가슴속에는 소박하지만 전혀 모자람 없는 행복이 빛나고 있다. …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운주사 펴냄 | 1만1000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여자전문대학 학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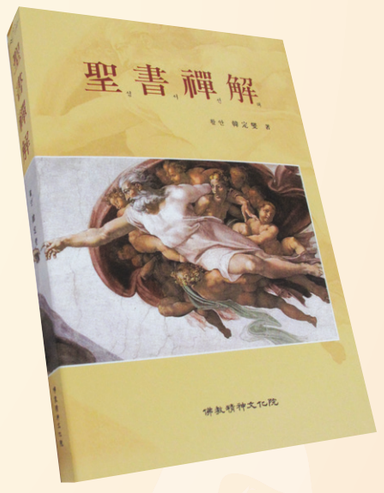
초발심자와 출가를 원하는 불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특히, 해외 포교 희망자와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환영합니다.

◈ 교육내용

	내 용
불교교리	① 경(아함 · 방등 · 반야 · 법화 · 열반 · 화엄경) ② 율(4분율 · 5분율 ·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 계율) ③ 논(구사 · 유식 · 3론 · 기신론) ④ 선(위빠사나 · 명상 · 선 실습)
불교의식	⑤ 포교론(군법당 · 교도소 등) ⑥ 밀교 ① 조석예불 · 종성기도 ② 불공 · 시식 ③ 송주 · 장엄염불 · 방생법회 ④ 승무(천수바라 · 공양무 등)
기타 교양강좌	외국어(영어회화) 꽃꽂이 · 다도 · 등공예

◈ 모집기간 : 2010년 4월 15일 ~
◈ 개강일자 : 2010년 6월 2일 (수) 오전 10시 입학식
(입학식 후 금강경오가해 특강 - 불교TV 방송녹화)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12시간)
◈ 모집인원 : 약간명 (기숙사 완비)
◈ 강의장소 : 제천 금강사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 특 전 : 1년 ~ 2년 과정으로 포교사 · 전법사 자격증 획득
출가를 희망하는 분에게는 삭발 · 수계
◈ 교 수 : 활안 · 도기 · 정명스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각계 전문인들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
제천 금강사 ☎ 043)646-3800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

성서선해 (聖書禪解)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 힌두성전 우파니샤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했을 뿐이다.

"불경과 성경이 지난 수천년 동안 인류가 이에
의지하여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왔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개척해 왔다"
- 성서선해 머리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께서는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하셨다.

聖書禪解 · 편저: 활안 한정섭 / 발행처 : 불교정신문화원 / 318쪽 /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02)969-2410 / 010-5611-0657